

The Way of Buddhist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Publicities in De-secularization and Neoliberalism

Doheum Lee*

Hanya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way for Buddhist education to cultivate publicity in the era of de-secularization and the neoliberal system.

CONTENTS & RESULTS I apply ‘the theory of Non-duality of Buddha and living beings’ to provide ‘the empathy and cooperation edu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Non-duality of Buddha and living beings’, I present ‘the empathy and cooperation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he root cause of violence, terrorism, and genocide stems from a paradigm that reinforces identity while excluding and otherizing pagans, other races, and minorities. While reinterpreting Wonhyo's “theory of discriminating sameness from differences”, I suggest the theory ‘the difference of Buddha-in-your-pupil’ as an alternative. The subject of Buddha-in-your-pupil is a citizen bodhisattva that synthesizes freedom from, freedom to, and freedom for based on the paradigm of difference of Buddha-in-your-pupil. The new Buddhist education sublates the supremacy of enlightenment, pursues the socialization of enlightenment, and practices ‘the preferential interpretation and compassionate practice for the poor lives’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sick place is the center of my body and the world.’ Righteous anger may be ideological from the other side, but ‘compassionate anger’ is justified doctrinally and ethically. The education is needed to raise Buddhists as subjects who are angry at the power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oppress the weak with the great compassion of one-body.

Key words de-secularization, socialization of enlightenment, the difference of Buddha-in-your-pupil, the subject of Buddha-in-your-pupil, compassionate anger

* **Corresponding to** Doheum Le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E-mail : ahurum@hanyang.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탈세속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불교교육의 길

이도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6대 위기의 상황에서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교육의 길을 모색하였다.

연구 내용과 결론 자비심의 바탕 또한 공감이기에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을 바탕으로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병처럼 공감하고 연대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감·협력 교육을 행한다. 폭력, 테러, 집단학살의 근본 원인은 이교도, 다른 인종, 소수자를 타자화하여 배제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바탕으로 눈부처 차이를 제안한다. 눈부처 주체는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대자적 자유를 종합하는 시민보살이다. 깨달음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추구하며,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자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에 입각하여 ‘가난한 생명을 위한 편애적 해석과 자비적 실천’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시대, 국가, 사회, 문화로 나누어 공업(共業)을 인식하고 이를 멸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분노는 상대편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일 수 있지만, ‘자비로운 분노’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승가교육도 21세기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승가는 시민사회와 국가, 자본과 시장체제로부터 독립된 진리와 가치구현의 장, 깨달음과 치유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승려교육에 문해력, 미적 감수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비판력과 공감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과목도 보완해야 한다.

주제어 탈세속화, 깨달음의 사회화, 눈부처 차이, 눈부처 주체, 자비로운 분노

I. 문제의 제기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한 불교교육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이 되려면 관념적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대중들이 맞고 있는 현실은 중층적이다. 우리의 현실에는 중세적/근대적/탈근대적 모순이 겹쳐 있다. 한 예로, 2003년에 정의평화불교연대가 공개적으로 합격발원기도를 중지하고 대신 이 단체의 교수들이 무료로 논술지도를 하겠다는 운동을 했다. 그 중에는 명문대의 유명한 교수도 있었고 대학에서 인문계 논술팀장을 맡고 있는 이도 있었다. 그런 기도에 대해 붓다께서 『가미니』 경에서 “가미니여, 그것은 마치 마을이 멀지 않은 곳에 깊은 못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아주 무거운 돌을 물속에 던져 놓고 … ‘물 위로 떠올라다오’라고 말하면서 … 여러 사람이 저마다 합장하고 칭찬하고 찬탄하며 축원했다고 해서 이것을 인연하여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겠느냐? (T.1, 440a)”¹⁾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음에도, 어떤 부처님이 남의 자식 떨어트리고 내 자식만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고 설득했음에도 몇몇 불자들이 논술 지도를 받기는 했지만 단 한 곳의 절도 응하지 않았다. 그 첫째 이유는 아직 중세적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소위 ‘기도발’을 믿은 탓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합격발원기도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탈근대의 맥락에서 이성이 해체되고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근대에서 탈근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문자시대에서 영상시대, 세속화시대에서 탈세속화 시대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고 있으며, 21세기 오늘 인류는 크게 6대 위기, 곧 불평등의 극대화 와 생존의 위기,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3차 디지털/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공공영역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의 근본원인을 추적하면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 체제로 귀결된다.²⁾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6대 위기의 상황에서 승/재가 모두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교육의 길은 무엇인가.

II.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본주의 체제에서 공공성의 개념

사건적으로 볼 때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

1) 中阿含經, “伽彌尼! 猶去村不遠有深水淵, 於彼有人以大重石擲著水中, … 願石浮出 … 此大重石寧為眾人各叉手向稱歎求索, 因此緣此, 而當出耶?”

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Lee, 2020: 504-534와 Lee, 2021: 41-65쪽을 참고하기 바람.

되는 성질”을 뜻하지만,(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르다. 이 지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철학적/역사적/사회학적 개념에 대해 논증하는 것은 지면낭비일 것이다. 모든 개념은 맥락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 와서 불평등이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공공성이 이의 대항담론으로 부상하여 치열한 담론과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다.³⁾ 이와 더불어 종교의 영역에서는 탈세속화의 맥락이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맥락에서 그 대항담론으로서 공공성의 개념과 지향에 대해 논한다.

(시민들이)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갖게 되면서 사적 영역의 한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두터운 의사소통망이 형성되었다. 서적, 잡지, 신문의 현저한 생산 확대, 문필가, 출판사, 서점의 증가, 대본(貸本) 도서관과 열람실의 설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독서문화의 사회적 구심점으로서 독서회의 설립에 상응하여 독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 계몽회, 교양협회, 프리메이슨 비밀결사, 광명회는 창립회원들의 자유로운, 다시 말해 사적 결의에 의해 구성된 결사체로서 자유의사에 따라 회원을 충원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평등한 교류 형식, 토론의 자유, 다수결 등을 실천했다 (Habermas, Han trans., 2019: 17).

지금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마녀의 화형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용납도, 이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17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중세 이데올로기와 페스트와 마녀재판, 연금술로 대표되는 주술의 정원으로부터 탈출하여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형성하였다. 여기에 시민들은 금속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서적과 잡지·신문의 출판, 계몽사상이 더해지고 부르주아가 성장하고 살롱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공공영역(Öffentlichkeit, Public Sphere)을 형성하였다. 부르주아들은 이곳에서 합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토론하면서 공론을 모았으며 그 공론들은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세속화/민주화/근대화를 촉진하였다.

세속화는 초시간적인 것에 의존하는 종교와 연관된 이전의 신앙 중심의 삶의 양식을 해체하고 세계 내 존재인 인간 이성애 기초한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 공적 담론에서 신성보다 이성과 과학에 의한 검증과 논증, 종교적 상징과 교리의 초월성의 박탈과 세계 내적 문화현상으로서의 해석, 예술에서 신(성)의 종속에서 탈출을 의미하였다(Jeong, 2011: 324-325).

3) 그람시는 부상계급(rising class)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에 의해 직접적으로 힘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교회를 통하여 지적이고 지적, 도덕적인 동의를 얻어 권위를 설정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를 ‘지배(domination)’라 하고, 후자를 ‘헤게모니(hegemony)’라 부른다. 그람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층이나 피지배계층이 학교와 교회, 언론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나 공공영역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여 자발적 동의를 받아서 발생하는 힘과 권위를 헤게모니로 규정한다(Antonio Gramsci, 1971: 145, 506-507, 502-535).

시민들은 타계(他界)로서 천국을 제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삶의 충만함을 누리려 하였고, 무한 대신 유한한 삶속의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신성보다는 이성과 과학에 의존하여 미지의 세계나 신비를 해명하려 하였고, 가난의 구제나 병의 치료를 신의 권위보다는 국가의 힘에 더 의존하였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종교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였다. 시민사회, 공공영역, 세속화, 이 세 가지가 형성되고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근대화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탈세속화와 탈종교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 전부터 이루어지던 것이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하면서 국가는 자본과 유착관계를 강하게 맺고 종교와도 동맹을 맺고 있다. 종교는 국가의 권력과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국가는 종교의 지지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확대하고 문자를 이미지가 대체하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로 공공영역이 디지털이나 가상세계로 확장되고 집단지성이 이를 주도하여 빠른 시간에 진리로 수렴되는 반면에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 부족주의가 강화하면서 공공영역의 붕괴 또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정합성, 타당성, 객관적/과학적 사실과 부합 여부가 아니라 믿음이 진리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바야흐로 탈진실(post-truth) 시대가 되었다. 종교적 진리 또한 근대에서는 과학적 진실이나 합리성과 결합하였으나 이로부터 분리되어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화하고 있다. “종교는 3차 서비스산업으로 전락하여 명상과 치유 또한 상품이나 개인적 치유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직자나 수행자에 대한 ‘묻지마! 팬덤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종교는 의미와 실존, 공동체와 연대, 구원/구제라는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였다”(Lee, 2017: 139-140). 반면에, 신이 우주와 생명의 창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과학적 진리의 보편화, 국가나 시민사회단체의 소망실현, 디지털화와 가상현실에 따른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가 겹쳐지면서 신자의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정도로 탈종교화의 흐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이란 국가와 종교 사이의 거리두기, 종교적 진리에 대한 합리성과 과학성에 바탕을 둔 해석, 종교적 상징과 교리에서 초월성의 박탈 등을 하여 공공영역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 인류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하여 여러 위기를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기에 최대한으로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념을 추구했다. 이 체제는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마저 사영화하여 자본의 수탈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을 유연화하여 수많은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였으며, 공적인 기준에 따라 행하던 규제를 해제하여 자본의 야만이 환경파괴와 노동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수탈로 이어지게 하였고,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복지를 축소하였으며, 세계화를 추진하여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실제로는 빈곤과 질병의 세계화로 귀결되었다. 야만적으로 노동자를 배제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생존위기에 놓이고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

하며 개인들은 물신주의와 경쟁제일주의, 과잉탐욕을 증대하고 국가는 점점 더 전체주의화한다.⁴⁾

그 실례로, “상위 10%가 전 세계 전체 소득의 절반인 52%를 차지하는 반면에 하위 50%는 8.5%만 차지한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격차가 심하다.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차지하는데 하위 50%는 단지 2%만 점유한다. 그 격차는 190배에 이른다. 상위 10%는 평균 55만 900유로(7억 2천 3백 3십만 원) 어치의 자산을 보유하는 반면에 하위 50%는 평균 2,900유로(380만 7천원) 어치의 자산을 보유한다.”(World Inequality Lab, 2021: 27) “전 세계 부채 총액 또한 272조 달러(약 30경 3,062조 원)에 이른다.”(IIF, 2020: 1)

코로나 이후 불평등은 더욱 악화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부는 2020년 3월 18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3.9조 달러(5,111조 원)나 증가했다.”(Oxfam, 2021: 12.) “상위 억만장자 1,000명이 전염병 이전 최고치로 재산을 회복하는 데 불과 9개월이면 가능했지만, 전 세계 극빈층은 회복까지 10년 이상(14 배) 더 걸릴 수 있다.”(Oxfam, 2021: 9)

계급만이 아니라 권력, 교육, 문화 등의 요인이 불평등을 심화하며, 거꾸로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과 보건, 문화 격차를 강화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전설이 되었고, 이제 명문대 진학률과 소득수준은 비례하며, 교육격차가 다시 경제격차를 심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유리층은 더욱 강고해지기에 ‘조국’이나 ‘나경원’이 양산된다. 부르디외의 주장대로, 구조화하고 내면화한 문화인 아비투스(habitus)가 계급이동을 막고 계급을 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계급 사이의 구별을 유지시킨다.⁵⁾

불평등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사회를 오염시킨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대신 경쟁과 힘에 의해 해결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Wilkinson, 2008: 321). “불평등이 심해지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통합이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내려가고, 범죄와 폭력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건강은 나빠지고 평균 기대수명이 떨어지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수준은 내려간다.”(Wilkinson, 2008: 315).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적대감, 인종적 편견이 심하고 여성의 지

4) Lee, 2015: 263-299쪽을 한 단락으로 압축하여 요약함.

5) “아비투스는 실천과 지각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조화된 구조이기”(Bourdieu, Choi trans., 1995: 281)에 “사회적 정체성은 차이를 통해 규정되고 확인된다. 즉 아비투스의 성향 안에는 불가피하게 그 구조 안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활조건의 경험에서 잘 드러나듯 여러 조건의 체계의 구조 전체가 각인된다.”(Bourdieu, Choi trans., 1995: 281) 예를 들어, 서울의 상류층 중년 남성이 귀중한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할 때 좋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반면에 노동자는 동료들과 술집에서 삼겹살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전자는 이를 통해 상류층 인사들과 사귀며 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 사업, 권력을 유리하게 작동시켜서 상류층을 유지하며, 후자는 노동자들과 사귀며 이런 문화나 계급적 삶을 유지한다.

위도 낮다.”(Wilkinson, 2008: 68). “불평등사회는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수감자의 수가 더욱 많으며, 정신질환과 비만 수준 역시 훨씬 높고, 기대수명과 신뢰도가 낮다. (...) 당연한 결과로 평균소득을 조절한 후 더욱 평등해진 사회에서는 아동 복지가 좋아졌고 스트레스와 약물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유아사망률 또한 낮아졌다.”(Schwab, 2016: 150).

이와 같은 탈세속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공공성은 공익, 공동체, 공정성, 공동선(共同善), 공평(公平), 정의, 공동의 진리 등의 의미를 갖는다.

Ⅲ. 공공성 함양을 위한 불교교육의 길

공공성 함양의 길에는 불자와 비불자, 승가와 재가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교 교리를 적용할 때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불교 교리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논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리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서양의 사상이나 과학의 수용도 필요하다.

1. 인간의 본성과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을 통한 공감·협력교육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에 불교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 괴리를 어떻게 과학적/합리적으로 메울 것인가.

38억 년 전에 원핵세포가 출현한 이후부터 27억 년 사이에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인간은 진핵세포로부터 진화한 고등생물로서 그 전 단계의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간직한 채 침팬지와 보노보 진화선에서 분기한 이래 700만 년 동안 집단을 이루어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인류만의 진화를 수행한 유전적 키메라(genetic chimera)이자 복합적 존재다. 그렇기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 올바르게도 총체적으로 규명하려면 철학과 심리학, 인류학과 더불어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 뇌과학, 사회학 등 자연과학을 융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인간 또한 생물학적 존재로서 볼 때 이기적 유전자가 조종하는 생존기계이며 이 유전자의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더 늘리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유전자의 절반을 가진 자식의 생존과 쾌락을 위하여 타자를 약탈하는 이기성을 가졌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를 형성하여 ARHGAP11B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거쳐 이성을 형성하고 거울신경세포체계(mirror neuron system)를 발달시켜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이에 인간은 사회적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혈연적 이타성(kin altruism), 집단적 이타성(group altruism), 호혜적 이타성(reciprocal

altruism), 윤리적 이타성(ethic altruism)을 증대해 왔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 세계를 구성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지향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본성을 구현한다. 인간은 불안과 소외를 극복하고 실존을 모색하는 존재(being)이자 타자와 서로 의존하고 조건과 인과로 작용하며 서로 생성하는 상호연기적 생성자(interdependent becoming)이다. 이에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실현을 위하여, 타자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타자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욕망이나 이기적 본능을 억압하거나 절제하고 도덕적 합리성을 추구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한다. 인간은 미적 존재로서 에너지를 낭비함에도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초월적 존재로서 불완전에서 완전, 비속함에서 거룩함, 유한에서 무한을 추구한다(Lee, 2015: 229-249; 2021b; 342).

무엇보다 선과 악, 이기와 이타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크게 12가지 요인 - ① 노동과 가치의 분배를 관장하는 체제, ② 타자에 대한 공감, ③ 의미의 창조와 공유, ④ 사회 시스템과 제도, ⑤ 종교와 사상, ⑥ 도덕과 윤리, ⑦ 의례와 문화, ⑧ 집단학습, ⑨ 타자의 시선/행위와 공공영역, ⑩ 수행, ⑪ 법과 규정, ⑫ 정치체제와 지도자 - 에 따라 요동을 친다(Lee, 2017: 24).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에 공유지의 비극을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생각한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을 더 증대하고자 공유자원을 초과 사용해서 공유자원이 손상되고 이용자 모두가 손해 보는 현상을 가리킨다. 또,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뜻하기도 하고, 좀 더 큰 단위의 경제나 시장이나 국가에서 구성원들이 공공의 가치보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Hardin, 1968: 1243-1248). 공유지의 비극이 대중들도 쉽게 거론할 정도로 유명한 학술개념이 되었으며, 이는 공유만이 아니라 공유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로 즐겨 활용되었다.

하지만,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유지의 희극론을 폈고 그는 이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다. 경제학자인 오스트롬은 인류학자 못지않게 스위스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동체를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이기적 탐욕을 추구하는 자에 의해 공유사회가 파괴된다는 하딘의 주장은 틀렸다. 그들은 사리사욕을 절제하고 공동의 가치를 더 추구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적으로 합의한 규약이 있었고 구성원 스스로 거의 대다수가 서로 행동을 감시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양을 몇 마리 더 길러서 얻는 이익보다 규칙을 어긴 행위로 인하여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다. “이에 공유자원의 경계가 명확할수록, 지역 조건과 규칙이 조화를 이룰수록, 대다수가 규정의 개정(민주적으로) 참여할수록, 모니터링이 잘될수록, 제재가 점진적일수록,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원활할수록, 공유자원은 잘 관리되었다”(Ostrom, 1990: 90).

이들 연구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이기와 이타가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이지만, 이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면 릴레이 기증이 잇따른 데서 잘 나타나듯이 12가지 요인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 인류는 아기를 양육하고 사회적 협력을 하면서 이타성을 증대시켜 왔으며 평등한 공동체에서 이는 최고에 이른다. 이를 불교와 결합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필자가 주장하는 눈부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효(元曉)의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을 결합하여 불교교육론으로 활용한 공감·협력 교육을 행하는 것이다.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유리창의 먼지를 닦으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무명(無明)을 없애면 불성(佛性)이 드러난다. 또 지극한 마음으로 팔정도를 모두 지키며 수행하고 정진하여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통을 겪는 중생이 있는 한 아직 부처가 아니다.⁶⁾ “먼저 깨달은 자는 항상 큰 자비로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며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의 의혹을 제거하고 샅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중생들이 열반의 언덕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럴 때 그 또한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Lee, 1999: 145)

이를 교육의 장에 활용하면 공감의 뿌리 교육을 바탕으로 한 공감과 협력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 메리 고든은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유치원에 갓난 아기를 데려와서 유치원 원아들이 9개월 동안 그들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으러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들의 마음이 같이 아파지는 체험을 한다. 이렇게 한 결과 원아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88%의 아동의 공격성향이 줄어들었으며 교실은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다. 메리 고든이 공감의 뿌리 교육을 통해 내린 결론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기본적인 요소”(Gordon, 2010: 262)이며, “이런 능력은 학습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Gordon, 2010: 262)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리졸라티가 밝힌 대로, “머카그원숭이 실험을 통해 영장류와 인간은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가 있어서 이를 통해 타인의 언어나 행위를 모방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한다.”(Rizzolatti et al., 1996: 131-141) “거울신경세포체계는 언어 학습과 소통에 관여하고 도움을 주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현격히 다르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관여한다.”(Rizzolatti et al., 2009: 625-640). 페라리와 리졸라티의 말대로, “타자의 행위를 관찰할 때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의 운동신경세포 또한 충분히 방어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Ferrari & Rizzolatti, 2014: 2).

공자의 인(仁), 예수의 사랑, 붓다의 자비 모두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을 내 것처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공감이란 타인의 아픔과 고통, 더 나아가 그의 기억의 주름들과 그 주름에 새겨진 흔적과 상처를 이해하고 끌어

6) 원문(원효, 1979: 639하-640상)과 이에 대한 해석과 논증은 이미 필자의 기존의 글(Lee, 1999: 140-145)에서 수행했으므로 생략함.

안는 것이다. 공감이란 타인이 나만큼이나 미숙하고 불완전하며, 부조리한 세계의 횡포로 비극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그 아픔 속에서 유한하고 무상한 인간의 본질, 세계의 부조리,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성찰하기에 지극히 실존적인 행위다. 너와 내가 모두 무상하다는 자각에서 오는 슬픔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여 나를 완성하는 자유 행위다. 우리는 타자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고, 타자를 책임지며 윤리를 실천하고, 타자를 통하여 무한으로 초월한다.⁷⁾

2. 동일성의 폭력을 해체하는 변동어이(辨同於異)의 눈부처 차이론

21세기의 불교교육의 인간형으로 많은 이들이 시민보살론을 주장한다. 필자도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탈세속화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시민보살론은 부족하다. 시민보살은 근대의 모순을 인식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주체로서는 타당하지만, 탈근대/탈세속화/간헐적 팬데믹 시대의 모순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민보살이든 아니든 근대적 주체는 동일성에 포획되어 타자에 대한 폭력, 테러, 학살을 범하기 때문이다. 이지메와 왕따 또한 근본원인은 동일성이다. 필자는 눈부처 주체를 이 시대의 모순과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의 인간형으로 내세운다.

집단과 국가 사이에서 인간이 행하는 직접적 폭력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이 집단학살이다. 이는 문명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왜 교양과 상식, 이성을 가장 잘 갖추고 보통교육이 실시된 20세기가 외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극단의 세기’가 되었는가. 이의 원인에 대해,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과 ‘순전한 생각 없음(sheer thoughtlessness)’으로 (Arendt, 2006: 380-381),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 때문이라 주장한다(Milgram, 2009: 30, 64).

하지만, 필자는 이것도 조금은 작용하겠지만 근본 원인은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순전한 생각이 없이 그저 조직에 충실한 아이히만에게 히틀러가 독일 우파 시민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도 유대인에게 하듯이 별 거리낌 없이 이를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마야족이나 잉카족의 어린이는 별 죄책감이 없이 죽였다. 이교도, 혹은 악마의 자식으로 타자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살 이전에는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는 혐오발언(hate speech)이 선행한다. ‘생각 없음’ 보다,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 대량학살이나 집단적인 폭력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은 동일성에서 비롯된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다. “동일성이 형성되는 순간 세계는 동일성의 영토로 들어온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뉜다. 동일성은 자기 바깥의 것들을 모두 타자로 간주하고 이를 자신과 구분하고 대립시키면

7) 여기서는 지면관계 상 간단히 요약함. 필자는 공감과 협력 교육을 21세기의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이라 생각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을 때 이를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공감과 협력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도훈, 2016: 108-153을 참고하기 바람.

서 동일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동일성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의 담론’을 형성하며, ‘차이’를 포섭하여 이를 없애거나 없는 것처럼 꾸민다.”(Lee, 2009: 257).

필자는 동일성의 배제와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바탕으로 ‘눈부처 차이론’을 제안한다. 이는 크게, ‘주/객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대대(待對)’⁸⁾, ‘내 안의 불성(佛性)과 타인 안의 불성의 서로 드러남’, ‘동일성에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⁹⁾ 차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른 것을 만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차이와 내 안의 타자를 찾아내고서 자신의 동일성을 버리고 타자 안에서 눈부처를 발견하고서 내가 타자가 되는 것이 눈부처의 차이이다. 이 사유로 바라보면,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너지며 그 사이에 내재하는 권력과 갈등,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서서히 힘을 상실한다. 그 타자가 이민족이든, 이교도든, 호모 사케르든 그를 부처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되는 사유다.

이를 교육에 응용하면, 기독교 학교와 국가에서는 성경과 유사한 내용과 문구, 사상이 꾸란에 있음을 가르치고 이슬람 학교와 국가에서도 그와 같이 성경에서 꾸란과 같은 내용과 문구, 사상이 있음을 가르친다. 백인 학생이 재즈를 배우고 흑인 학생이 포크송을 부른다. 남학생에게 요리, 뜨개질, 설거지, 육아를 실습시키고 여학생에게 레슬링, 축구, 씨름을 행하게 한다. 수업 시간에 서로 역할 바꾸기 연극도 한다. 예를 들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흑인 학생이 백인 경찰 역을 행하고, 백인 학생이 조지 플로이드 역을 맡는다.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시민보살이 눈부처 주체다. 인간은 불안과 소외를 극복하고 실존을 모색하는 존재(being)이자 타자와 서로 의존하고 조건과 인과로 작용하며 서로 생성하는 상호연기적 생성자(interdependent becoming)이다. 눈부처 주체는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할 때 완성되는 존재다. “눈부처 주체는 모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소극적 자유(freedom from), 노동을 통해 진정한 자기실현을 하거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을 하거나 수행과 정진을 통하여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적극적 자유(freedom to), 고통에 있는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여 그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환희심을 만끽하는 대자적 자유(freedom for)를 종합한다.”(Lee, 2015: 250-251).

탈세속화와 신자유주의 체제, 더 나아가 인류세와 간헐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공공성을 함양하려는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 유형은 눈부처 주체다. 그는 권력, 이데올로기, 신화, 타자 등

8) 대대(待對)란 크게 두 가지 의미다. A or not-A의 이분법이 아니라 모순으로 치부하였던 ‘A and not-A’의 퍼지(fuzzy)의 사유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보통 환하면 낮이라 하지만, 낮 12시 정각이라 하더라도 12시에서 0.0001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극점만이 낮인 것이며, 1분만 지났다 하더라도 그만큼 밤이 들어와 있으니 하루의 언제든 낮인 동시에 밤이다. 태극에서 파란 태극 안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태극 안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듯, 서로 대립하는 것을 자기 안에 품고 서로 상호작용 내지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9) 눈부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Lee, 2015: 164-185. 참고하기 바람.

자신을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하고 이의 탈주를 모색한다. 그는 자기 앞의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향성에 따라 그 의미를 실천한다. 그는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행하도록 노력하며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구현하고, 수행을 통하여 거듭남이나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는 다른 생명이나 타자가 자신과 연기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병처럼 공감하며 이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실천에 나선다.

3. 깨달음 지상주의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로

주지하듯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적 인간관의 목표이기도 하다. 붓다를 따르는 이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답은 없을 것이다.

깨달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초기경전을 보자. 최초의 설법이 담겨 있는 『전법륜경』에서 붓다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했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 (사성제를 알고서)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眼]이 생겼다. 지혜[智]가 생겼다. 통찰지[慧]가 생겼다.”라고 말한다(Maseong, 2021: 370-372). 석가는 “앗삿타(assattha)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다가 드디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anuttara sammāsambodhi, 無上正等覺)을 얻어 붓다, 즉 각자(覺者)가 되었으며, ... 붓다의 깨달음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붓다의 깨달음은 연기의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Maseong, 2021: 370)

연기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서로를 말미암아 생명이 활동한다는 연기의 법칙이 ‘사실의 판단’이라면, 필연적으로 ‘사이 좋게’ 지내야 하는 것은 ‘가치의 판단’이다.”(Beob-in, 2014: 9) 한 개인만 생각하면 삼독을 멸하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만, 고통 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은 중생의 삼독을 멸하고 함께 깨달음에 이르라고 말한다.

세친(世親) 보살은 『불성론(佛性論)』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애착은 버리고 큰 자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사랑은 일어나게 한다. 지혜로 말미암아 범부의 집착은 버리고, 큰 자비로 말미암아 이승(二乘)의 집착을 버린다. 지혜로 말미암아 열반을 버리지 않고, 자비로 말미암아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지혜로 말미암아 불법을 이루며, 큰 자비로 말미암아 중생을 성숙하게 한다.(T.31, 787b)”¹⁰⁾라고 하였다. 지혜가 있기에 모든 집착과 삼독의 원인인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만, 고통 받는 중생에 대한 자비로 말미암아 중생에 대한 사랑은 늘 솟어나게 한다. 범부가 갖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므로 이를 지멸(止滅)하지만, 큰 자비가 있기에 이승(二乘)만을 방편으로 삼는 집착 또한 버린다. 열반은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를 없애야 달성

10) 佛性論, “由般若故 滅自愛念 由大悲故 生他愛念 由般若故 捨凡夫執 由大悲故 捨二乘執 由般若故 不捨涅槃 由大悲故 不捨生死 由般若故 成就佛法 由大悲故 成熟眾生”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열반에 이르려는 마음 또한 욕망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는 방편으로서 삼독(三毒)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혜가 있기에 모든 번민에서 벗어나 불법을 이루려 하지만, 자비가 있기에 설혹 불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루고 중생을 깨닫게 하는 일에 머문다.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 받는 중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이 아니라 열반이다. 그 열반은 나만의 열반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생들이 화탕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무진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선방에서 나홀로 정진하며 평안하면 깨달은 것인가.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한, 설령 깨달았더라도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니, 먼저 깨달은 자는 항상 큰 자비로써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생의 의혹을 제거하고 사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그들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다. 그럴 때 나 또한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의 가장 인간됨은 개인의 각성과 거듭남을 바탕으로 윤리적 이타성을 발현할 때 이루어지며, 불자의 가장 붓다다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타 동시의 열반에 이를 때 이루어진다.

생명이 집단적으로 죽어가고 불평등이 극심해진 현 상황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편애적 선택(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가톨릭 사회교리서)에 더하여 ‘가난한 생명을 위한 편애적 해석과 자비적 실천(the preferential interpretation and compassionate practice for the poor lives)’이 필요하다.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자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도, 머리도, 심장도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손가락을 조금만 다쳐도 온 정신이 그리 쏠리고, 백혈구와 산소와 영양분과 복원 세포가 그리로 모여 세균을 퇴치하고 새살이 돋게 하고 결국 몸을 치유한다.”¹¹⁾ 그렇듯, 난민, 해고노동자, 모든 죽은 이들의 유가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있는 자리가 내 몸과 이 나라의 중심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이 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곳의 희생자이기에 그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잠수함의 토끼’다.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모순을 극복하고 나와 내 가족을 구제하는 것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그 어떤 이론보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빚은 모순과 아픔의 현장에서 같이 하며 공감하고 모순을 인식하는 것은 가장 붓다처럼 사는 것이자 눈부처 주체로 거듭나는 길이다. 쌍용자동차, 세월호,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 등 주변의 아픈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루라도 같이 하며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낳은 모순에 대해 인식하고 치유/해소/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라는 과제를 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적었다.

11) Lee, 2015: 181-182.에서 인용한 것이며,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라는 말은 필자가 집회의 발언, 칼럼 등에서 즐겨 사용하면서 알려졌지만, 이의 근원은 엘리 위젤(Elie Wiesel)이다. 그가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198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행한 연설에서 “인간이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는다면 그곳은 어디든지, 그 순간에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4. 별업(別業)에서 공업(共業)으로

업을 윤회설과 결합하여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세의 주술의 정원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업보로 환원하는 것은 이 모순을 은폐하고 이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소거하는 이데올로기다. 업이란 주어진 숙명이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다. 업은 시간에 따른 존재의 변이가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원리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주체로서 선업으로 악업을 소멸시켜서 선한 존재로 거듭나도록 이끄는 원리다.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업의 소유자인 인간이 공공성을 담지할 수 있는 것은 공업(共業) 때문이다. 박경준은 『아비달마비바사론(阿毘達磨毘婆沙論)』과 『열반경』을 바탕으로 공업론을 펼친다. 공업은 “일체 중생의 공동의 업으로서 자연환경의 성립과 파괴, 그리고 상태를 규정하는 업이다”(Park, 2009: 159). “이 세계는 업의 산물로, 중생은 중생 각각의 별업에 의해, 세계는 중생들의 공통된 공업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Park, 2009: 159). “개인의 운명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만이 아니라 자연 및 자연현상, 시대, 국가와 직장, 사회와 문화가 빚어낸 공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ark, 2009: 162)

개인과 사회는 서로 상호침투적이며 상호작용한다. 별업과 공업 또한 마찬가지다. 별업이 쌓여 공업을 만들며, 공업이 별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개인의 수행과 도덕적 행위, 깨달음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없다. 개개의 생명들의 의지처이자 조건과 인과로 작동하는 자연을 잘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하여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을 갖고 자신과 연기적 관계에 있는 무수한 타자 및 그들이 빚어내는 사회를 잘 이해하고 사회의 악업인 모순을 비판하고 극복해야 하며 약자들의 아픔에 동체대비심을 갖고 그 치유에 동참해야 한다.

공업론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뒷받침하는 고리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길이기도 하다. 21세기의 불교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과 맞서는 불교교리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공업론은 업에서 숙명론이나 주술적 담론을 제거시킨다. 나아가 개인을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주체로 바로 서게 한다. 이에 별업만이 아니라 자연, 시대, 국가, 사회, 문화로 나누어 공업을 인식하는 교육, 별업을 넘어 공업을 멸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분노의 부정에서 자비로운 분노로

필자가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에 기획위원이나 공동대표를 맡아 연대하는 것을 보고 한 불자가 “민교협의 의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자로서는 참여하면 안 된다. 경전 어디에도 분노를 긍정하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CBETA로 검색해보니 그 말이 맞았다. 상대방이 팔다리를 자를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자비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 딜레마/아포리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번민하였다. 그러다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문구를 만났다.

『대방편경』에서는 500명의 선원 중의 한 사람이 나머지 499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선장이 세 차례나 그러지 말라고 그 선원을 설득했지만 실패하자 선장은 499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업을 자신이 지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그 선원을 죽인다, 그 선장이 바로 전생의 부처다(Hessel & Dalai-Lama, Lim trans., 2012, 51-52).

『대방편경』의 가르침대로, “죽어가는 생명,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의 연장으로 발생하는 분노, 생명을 살리고 구성원의 분노를 줄이기 위하여 구조적 폭력이나 잘못된 국가와 세계 체제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¹²⁾ 단, ‘정의로운 분노’ 또한 상대방에서 보면 이데올로기나 폭력일 수 있고 화쟁의 방편이 아니므로 자제해야 하며, 그 분노의 표출은 설득과 협상 등 평화적 방법이 무망한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증오와 폭력이 없이 약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이 동기인 경우에 한정하여 행해야 한다(Lee, 2016b: 171).” 이 분노는 친소(親疎)의 거리를 따지지 않고 자비심을 내는 중생연(衆生緣)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될 부처’를 따로 보지 않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慈)와 ‘구할 중생’을 구분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은 누구든 그 고통에 공감하여 연대하여 고통을 제거하는 비(悲)를 늘 전제로 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대화의 위기를 맞는 불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타자와 생명을 위하여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무소유와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 시여(施與)의 환희심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상사 공동체처럼 월 5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삶의 실천, 그래비티 페이먼츠 사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¹³⁾

12) 필자의 자비로운 분노론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조준호 교수는 석가족이 몰살당하자 붓다가 “지금 머리를 돌로 치는 것 같고 또 머리에 수미산을 인 것 같은 두통을 앓고 있다.”한 것(T.2, 690a-693c)이나 붓다의 이마에 물을 뿌리니 “곧 연기가 나면서 소리 내어 끓는 것이 마치 불 달은 쇠덩어리를 물에 던 것과 같았다.”라는 기록(T.4, 463b)을 이를 보완하는 경전 상 근거로 제시하였다. 감사를 드린다.

1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앵거스 디튼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며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가 행복의 분기점이라 한다. 그 이상 많이 벌어도 행복감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착안하여 그래비티 페이먼츠사의 덴 프라이스(Dan Price)는 자신의 임금을 삭감하여 모든 직원의 최저연봉을 7만 달러로 맞추었다. 그 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고 회사는 성장하였다(Hegarty, 2020).

6. 공공성 함양을 위한 승가교육의 방향

승가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전근대 농업사회와 가부장 사회에서 행해지던 방식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답습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런 승가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 개혁이 있었지만, 대개 승가공동체의 틀에서만 다루는 데 그쳤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어찌 구제하고 그에 맞추어 어떤 응병여약(應病與藥)의 포교를 할 수 있겠는가. 디지털의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모르고서 어떻게 대중과 만나고 소통하겠는가.

승려든 승가 교육이든 종교와 국가,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대다수 승려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의 시녀로 봉사하거나 호국 불교의 미명 아래 국가의 사업이나 정치에 동원되거나 선거 때마다 정치인의 선전장으로 활용되기에, 시장 체제로부터 분리된 가치와 진리,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이 시장체제에 종속되고 승려들 또한 물화(reification)와 화폐증식의 욕망에 휘둘려 범계 행위를 다반사로 하기에, 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승려/승려교육은 의미의 원천으로서 시민사회의 담론을 구성하고, 국가 및 자본과 창조적 긴장관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제 승가는 종교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자본과 시장체제로부터 독립된 진리와 가치구현의 장, 깨달음과 치유의 마당을 구성하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종교/세계를 비판적/과학적/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사찰 안에 공공영역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절 안에서, 재가불자와 관계에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일소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승려교육은 이런 주체로서 승려를 길러내야 한다.

승려교육에 단순히 글을 읽고 해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 자체를 이해하면서 실천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역량으로서 문해력, 미적 감수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판력, 다시쓰기, 공감력을 키우는 교과목, 디지털 도구의 활용도 보완되어야 한다. 비판력이 없이는 문해력이 뛰어난 이들도 이데올로기, 기존체제, 권위에 사로잡혀 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승려들이 시민적 주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문해력도 다시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판적 읽기는 담론에 담긴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쓰기는, 토끼와 거북이 우화의 결말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것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듯, 텍스트를 단순히 패러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틀어 텍스트의 신화에 조작되던 대상이 주체로 서서 세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Lee, 2004: 48). 다시쓰기는 원전에 대한 이해, 원전에 담긴 이데올로기의 비판, 이의 부정과 풍자, 세계의 재구성 모두를 도모한다.

승려 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보태면, 나를 깨닫기 위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과 뇌과학, 세계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인문학, 중생을 깨닫기 위한 사회학과 대중문화, 중생과

함께 동체대비하는 21세기 현재의 문명과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의 강좌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였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한 마음과 심리, 두뇌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 사회가 6대 위기의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승가가 존속하기 어렵다. 단, 이럴 경우 너무 많은 교과목으로 학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과목을 통합하여 학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재를 통일하고, 각 교과목별로 표준 교안을 만들고, 교과목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연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맺음말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전해주는 것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세계와 마주쳐 상호작용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타자와 만나 서로 조건과 인과로 작용하며 생성하는 자임을 인식하여 그의 고통에 공감하고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협력하면서, 인류가 온축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응하고, 타인과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깨닫고 이를 끊임없이 향상시키면서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적극적 실천이다. 교육은 내가 그리로 가 그를 발달/완성시키고 그를 통해 다시 나를 발달/완성하는 부단한 상호작용의 행위이다.

탈세속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6대 위기의 상황에서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교육의 길을 모색하였다.

인간은 이기와 이타가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이지만, 아기를 양육하고 사회적 협력을 하면서 이타성을 증대시켜 왔다. 자비심의 바탕 또한 공감이기에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을 결합하여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병처럼 공감하고 연대하는 능력을 기르는 공감·협력 교육을 행한다.

폭력, 테러, 집단학살의 근본 원인은 이교도, 다른 인종, 소수자를 타자화하여 배제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효의 변동어이(辨同於異)론을 바탕으로 눈부처 차이를 제안한다. 눈부처 주체는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대자적 자유를 종합하는 시민보살이다.

깨달음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추구하며,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자 세상의 중심이다.”라며 ‘가난한 생명을 위한 편애적 해석과 자비적 실천’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업(common karmas)론은 업에서 숙명론이나 주술적 담론을 제거시킨다. 나아가 개인을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주체로 바로 서게 한다. 이에 자연, 시대, 국가, 사회, 문화로 나누어 공업을

인식하는 교육, 별업을 넘어 공업을 멸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분노는 상대방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일 수 있지만, ‘자비로운 분노’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폭행하는 세력이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그들의 고통에 대한 동체대비심으로 분노하는 주체로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승가교육도 21세기에 맞게 혁신을 해야 한다. 승가는 시민사회와 국가, 자본과 시장체제로부터 독립된 진리와 가치구현의 장, 깨달음과 치유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승려교육에 문해력, 미적 감수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비판력과 공감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교과목도 보완해야 한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佛性論. *Foxinglun*. T.31.

中阿含經. *Madhyamāgama*. T.1.

[Secondary Sources]

Arendt, H. & Elon, A.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김선욱 옮김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서울: 한길사.

Beob-in Rev. (2014). The Thought of Buddhist Life and Bioethics. *2014 Workshop at woljeong-sa temple The Life Value of Buddhism in Viewing Biodiversity*, woljeong-sa temple.

Bourdieu, P.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옮김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권. 서울: 새물결.

Cho, J. H., Ferrari, P. F., & Rizzolatti, G. (2014). “Mirror neuron research: the past and the futur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2014, B369: 20130169.

Gordon, Mary. *Roots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문희경 옮김 (2010). 공감의 뿌리. 서울: 산티.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 한승완 옮김 (2019).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 Hegarty, Stephanie (2020.02.28). "The boss who put everyone on 70K," *BBC*.
- Hessel, S. & Dalai-Lama. *Declarons La Paix! Pour Un Progres De L'esprit*. 임희근 옮김 (2012). 정신의 진보를 위하여: 달라이 라마와 스테판 에셀이 나눈 세기의 대화. 서울: 돌베개.
- IIF (2020). *Global Debt Monitor: Attack of the Debt Tsunami*. 1-6.
- Jeong, D. S. (2011). From Secular Society to Post-Secular Society: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Knowledge' in the Philosophy of Hegel and Habermas.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19, 323-345.
- Lee, D. H. (2004). On the Difference Between Representation of Reality and Truth.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5, 27-55.
- Lee, D. H. (2009). The Innovation of Paradigm and Methodology on the Argument of Modernity: From Colonial and National Modernity to the differences and Varieties of Modernity.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53, 253-285.
- Lee, D. H. (2016b). The Way to Healing Personal and Social Anger. *Buddhist Review*, 18(3), 154-178.
- Lee, D. H. (2017). The Era of Post-secularization and the New Buddhist way. *The Buddhist Review*, 19(3), 138-161.
- Lee, D. H. (2017). The Hwajaeng Buddhist Alternatives to Types of Violence. *Th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9(1), 5-42.
- Lee, D. H. (2021a). The Age of Intermittent Pandemics: the Overlap of Crises and its alternatives. *Marxism* 21, 18(1), 41-65.
- Lee, D. H. (2021b). The Convergent analysis on Human nature and New horizon.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76, 341-369.
- Maseong Rev. (2021). Early Buddhist Thought. Changwon: The Institute of Pāli Literature.
- Milgram, S. *Obedience to Authority: An Experimental View*. 정태연 옮김 (2009). 권위에 대한 복종. 서울: 에코리브르.
- Moore, J. W. (2016).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Oakland: PM Press.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May 5th 2022.)
-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am (2021). *The Inequality Virus*. Oxfam GB. 1-80.

- Park, K. J. (2009). The Social Connotations on the Buddhist Theory of Collective Karma -Focusing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about Social Practice. *The Journal of Buddhist Studies*, 52, 149-171.
- Rizzolatti, Giacomo et al. (1996). Premotor cortex and the recognition of motor actions. *Cognitive brain research*, 3(2), 131-141.
- Rizzolatti, Giacomo et al. (2009). The Mirror Neuron System: A motor-Based Mechanism for Action and Intention Understanding. In Gazzaniga, Michael S. (eds.). *The Cognitive Neurosciences*. Cambridge, Mass.: MIT Press, 625-640.
- Schwab, Klaus. et a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김진희, 손영수, 최시영 옮김 (2016).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
- Stephanie, "The boss who put everyone on 70K," *BBC*, 28th February 2020. (<https://www.bbc.com/news/stories-51332811>, May 27th 2022)
- Wilkinson, Richard G.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김홍수 옮김 (2008). 평등해야 건강하다. 서울: 후마니타스.
- World Inequality Lab. (2021).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UNDP.
- 마성 (2021). 초기불교사상. 도서출판 팔리문헌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Maseong Rev. (2021). *The Thought of Early Buddhism*. Book Publishing of the Institute of Pali Literature Research.
- 박경준 (2010). 불교사회경제사상. 서울: 동국대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Park, Kyoung Joon (2009). *The Buddhist Social and Economic Thought*.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원효 (1979). 金剛三昧經論, 한국불교전서 제1책. 서울: 동국대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Wonhyo (1979). *The Commentary on Diamond-Samadhi Sutra*. in *Korean Buddhist Collection*.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이도흠 (1999).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화쟁사상을 통한 형식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종합, 서울: 한양대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1999). *The Theory and Practice of Hwajaeng Semiotics: The Synthesis of Formalism and Marxism through Hwajaeng-Buddhism*.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 이도흠 (2015).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서울: 자음과모음.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2015). *The Convergent Dialogue between Wonhyo and Marx on the Crises of Humankind*. Seoul: Jaecum-gwa-Moeum Publisher.
- 이도흠 (2016a).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민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전국국어교사모임/시민행성. 교사인문학. 서울: 세종서적.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2016). How to

nurture citizens with sympathy and solidarity, in *The Humanities For Teachers*, edited by National Association for Teache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Sejong Books.

이도흙 (2020).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2권. 서울: 특별한 서재.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2020).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lternative Society*. Vol.2. Seoul: The Special Library Publisher.